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국사교과서 문제점과 대안
[발제자]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일 시] 2020년 05월 21일(목) 오전 10시
▶ 온라인 You Tube 영상



☒ 문자 후원
#7079-4545

제338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2020 국사 교과서는 전근대와 근현대 비중이 1:3으로 근현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현대의 내용에서 왜곡, 오류, 날조가 많이 있으며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서술과 사진을 많이 실음으로서 사실에 충실하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역사 교과서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 대안은 국사 교육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시대별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기존 자료를 토대로 논란이 없는 것은 그대로 정리하고 이설이나 소수설은 부기하도록 한다.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학설이 첨예한 부분은 학회나 연구자에게 의뢰하여 합의·도출한 표준안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또한, 온라인에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전문가에 의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 국사 교육 표준안을 제정하여 교육하면 상이한 역사 교육으로 발생하는 국론 분열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국사 교과서가 질적으로 향상된다. 이는 초·중·고 국사 교과서 편찬의 토대가 되고 각종 시험 출제, 참고 도서 간행, 대중 역사물 제작의 토대가 되며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 보급할 수 있다.

◆ 2020 국사 교과서의 문제점

- ◆ 2020 국사 교과서는 전근대와 근현대 분량의 비중이 1:3으로 이전의 1:1에 비해 근현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현대의 내용에서 왜곡, 오류, 날조가 있으며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서술과 사진, 그림을 치중되게 실고 있어 사실에 충실하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역사 교과서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가. 흥선대원군

- ◆ 근현대사의 오류, 왜곡은 근대에 집중되어 있다. 흥선대원군은 아무런 직위나 직책이 없으며 통치 권한이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교과서에는 1863년 즉위 이후, 고종 실적이 아니라 흥선대원군의 업적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 교과서에 실린 흥선대원군의 내용은 공식적인 국가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야사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
- ◆ 1873년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친정을 선언한 것도 공식기록에 없는 내용이다. 또한, 조선의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은 국가 공식 기구에서 편찬한 것이므로 왕의 부친인 흥선대원군의 업적이 될 수 없다.
- ◆ 경복궁 중건, 서원철폐, 척화비 건립을 흥선대원군이 했다는 것은 어떤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흥선대원군은 불법 부당하게 실권을 장악했고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이다. 교과서에는 야사가 아닌 당시 국가최고통치권자인 고종 위주의 서술이 필요하고 흥선대원군의 통치가 불법 부당한 것임을 서술해야 한다.

나.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 ◆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는 불평등조약으로 알려져 있으나 불평등조약이라는 근거는 없다. 조약의 내용은 조선은 자주국이며 양국은 해안을 측량할 수 있다는 조항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특히 조약 내용 중 치외법권 조항은 서술의 오류이다. ‘조선국 인민을 대상으로 한 일본인 범죄자는 일본이 재판한다.’라는 것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인 범죄자는 조선관리가 재판한다.’라는 이어진 내용이 교과서에 누락되어 있다. 현재는 이 같은 내용이 문제로 제기되어 초등사회 교과서 6-1에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다.

다. 동학 농민 운동

- ◆ 동학 농민 운동은 사료에 오류가 있다. 사발통문으로 소개되는 문건은 통문이 아니며 이는 당시에 있었던 일을 후대의 다른 사람이 시간별 날짜별로 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잡기’다.
- ◆ 폐정개혁안 역시 교과서별로 상이하게 서술하고 있어 학생들이 하나의 사실에 서로 다른 내용을 배우는 문제가 발생한다. 폐정은 잘못된 정치이며 이를 개혁하는 주체도 결국 정부다. 노비해방, 세금감소 등은 정부의 권한으로 지방의 일부 농민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교과서에는 농민군이 폐정개혁안을 실천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주 화약은 농민군들이 정부군에게 폐정을 개혁해달라고 요구하여 정부군이 개혁할 것을 조건으로 해산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라. 산미증식계획

- ◆ 산미증식계획은 무역 용어가 교과서마다 수출, 이출, 반출, 유출 등으로 상이하다. 당시에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기에 ‘이출’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이출’은 수출과 같은 의미이지만 명백한 차이는 관세다. 미국, 캐나다 등에는 관세가 있으므로 ‘수출’ 용어를 사용하지만, 일본과 조선의 교류에는 관세가 없었기에 ‘이출’이 정확한 표현이다.
- ◆ 또한, 당시 조선에 식량 사정이 악화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당시 조선이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굶어 죽었다. 오히려 일본 농민들은 값싼 조선 쌀이 들어오는 것에 반발했다. 조선에서는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면 수출대금이 들어왔고 그 대금으로 잡곡을 사 먹을 수 있었다.

마. 그 밖의 내용

- ◆ 교과서에 해방과 광복의 구분조차 명확히 되어있지 않다. 광복은 빼앗긴 주권을 회복한 것으로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1945년 8월 15일은 이후에도 미군정의 통치가 있었기에 온전한 주권의 회복이 이뤄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광복이라 할 수 없다.

- ◆ 위안부 서술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다. 당시의 상황에서 벌어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해야지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념이나 시각에 맞추어 기술하면 역사는 왜곡된다. 논쟁이 많은 것일수록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근거도 없이 자기들의 주장을 역사로 기술해서는 안 된다.
- ◆ 이번 2020 국사 교과서는 모든 교과서에 촛불집회가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으로 실리는 등 정권에 우호적인 홍보물로 사용되고 있다. 남북문제도 그렇다. 현재도 북한은 미사일을 발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으로 큰 성과를 이루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 2020 국사 교과서 대안

가. 국사 교육 표준안

- ◆ 대안은 국사 교육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시대별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현행 고교 교과서 분량의 3배 정도를 마련하되 기존 자료를 토대로 수합하여 논란이 없는 것은 그대로 정리하고 이설이나 소수설은 부기하도록 한다.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고 학설이 첨예한 부분은 학회나 연구자에게 의뢰하여 합의·도출한 표준안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또한, 온라인에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전문가에 의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국사 교육 표준안의 기대 효과와 활용

- ◆ 역사전문가에 의해 관리하고 수정·보완하여 비전문가인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 그래야 역사 왜곡으로 발생한 국론 분열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국사 교과서가 질적으로 향상된다. 이는 초·중·고 국사 교과서 편찬의 토대가 되고 각종 시험 출제, 참고 도서 간행, 대중 역사물 제작의 토대가 되며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 보급할 수 있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